재발된 상악 편평상피세포암종에서 동반된 신경 주위 침윤의 증례 보고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김종원*, 서요섭, 김진수

신경 주위 침습 (Perineural tumor spread, PNS)는 악성 종양 세포가 신경 주위 공간을 따라 확산하는 현상으로, 두경부 영역 악성 종양에서 임상적, 영상학적, 병리학적 중요성을 지닌 침습 경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구강악안면 영역에서는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와 다양한 신경 분포로 인해, 신경 주위 침습은 종양의 진단, 병기 설정, 치료 계획 수립 및 예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74세 남자 환자가 본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였으며, 내원 약 2개월 전 좌측 상악 제1,2대구치 발치 후 치유되지 않는 지속적인 염증성 병변으로 local clinic으로부터 의뢰되었다. 구강 내 임상 검사에서 좌측 상악 구치부 치은에서 불규칙한 과증식이 관찰되었으며, 절개 생검 결과 중등도로 분화된 편평상피세포암종(squamous cell carcinoma, moderately differentiated)으로 진단되었다. PET-CT 검사에서는 좌측 상악 후방부에서 높은 대사항진(maxSUV: 18.6)이 관찰되었고, 좌측 경부에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병변 부위를 포함한 광범위 절제술과 함께 구개부를 포함한 partial maxillectomy을 시행하였고, 좌측 경부에서 선택적 경부절제술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수술 약 3년 후, 환자는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안면부 종창을 주소로 재내원하였고, 절개 생검 결과 종양의 국소 재발이 확인되었다. 조영 증강 CT 영상에서는 좌측 상악동벽 전반을 파괴하는 불규칙한 종괴가 후방으로 pterygopalatine fossa를 침범함과 동시에 상방으로 inferior orbital fissure까지 연장된 신경 주위 침윤(perineural tumor spread) 소견을 보였다. 병소의 완전 절제를 위해 안와저를 포함한 subtotal maxillectomy을 시행하였으며 안와저부는 titanium mesh plate를 이용하여 재건되었다. 현재 환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중에 있다.